

# 소리꾼, 한계의 경지 '완창'

'적벽가' 3시간·'춘향가' 8시간 등 장시간 공연, 자기 증명의 기회 고수와 동행...무언의 호흡 중요

김다정 명창, 춘향가 완창 성료  
박애화 명창, 28일 첫 발표회  
빛고을국악전수관서 '심청가'



소리꾼 '박애화'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스승인 이은하(광주시 무형유산 제1호 예능보유자) 남도판소리 전승계보(박유전-이순자)를 잇고 그 아름다움을 귀명창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한다.

아울러 소리꾼 김다정(여·42)은 최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춘향가' 완창발표회 '因緣-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성료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판소리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 씨는 올해 제26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의 전남대 국악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광주예고, 전남예고 등에 출강 중이다.

이번에 선보인 보성소리 동편제 김세종판 조상현류 '춘향가'는 조상현·주수연을 거쳐 김 씨에게 전승된 작품이다. 복제는 박근영·임영일·김준영 명고가 잡혔다.

김다정은 "이번 완창회는 총 6시간에 걸쳐 무려 81대목에 달하는 방대한 구절을 모두 불러야 해서 심리적·육체적으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사를 완벽히 숙지했다라도 무대에 오르려면 입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입에서 저절로 가사가 튀어나왔으며 비슷한 말이라도 생각해 냈던 것이 자신만의 노하우라는 것.

이어 "그럼에도 '완창'만의 매력은 자신과의 싸



이번 김다정·박애화 완창 발표회에서 장단을 맡은 김준영 교수.

움이라는 데 있다. 끝나고 나면 성패가 갈리는데 성취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남아 계속 도전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두 공연에서 모두 복채를 쥐는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김준영 교수의 생각도 궁금했다.

창자가 실수하면 가사를 알려주거나 장단의 한 배(리듬)를 조절해 소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에 완창발표회에서 교수의 역할은 크다. 통상 긴 연행시간 탓에 1~2부 고수를 나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김 씨는 "완창"은 '완복'과 별개의 것이 아니기에 서로 동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판소리 주요 눈대목에 비해 분량이 길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가차에 대해 관점이 다른 일각의 시선도 존재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호남의 춤' 한자리에

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호남산조춤보존회, 7개 곡 선사



호남 지역에 산재해 있던 춤을 보존·계승하고 있는 (사)호남산조춤보존회가 진도 무대에 선다. 이들이 발전시켜 온 '호남산조춤'부터 명자를 위한 무속 의례에서 기원한 '지전춤'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토요상설 일환으로 '전라감영 교방춤 던'을 오는 23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사)호남산조춤보존회를 초청해 일곱 개 곡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은 입소리에 맞춰 장단 사이를 넘나드는 '금어지무'로 막을 올린다. 인위적 기교보다 우주적 기운과 조화를 모색하는 금어이길주의 기본 춤으로 최경자, 김경화 등이 출연한다. 이어지는 '전라감무'는 전라 지역의 역동성 있는 춤사위로 열불, 자진타령, 타령 장단으로 구성됐다.

'전라교방입춤'도 레퍼토리에 있다. 영남지역의 남성성과 달리 현란하지 않은 절제미가 돋보이며 강약 조율이 긴장감을 준다. 호남우도농악의 개인놀이인 구정놀이에서 비롯된 '장구춤', 남도 시나위장단에 맞춰 추는 민속춤 '살풀이춤'도 있다.

무속의례 '지전춤'과 산조 음악에 맞춰 추는 입춤 '호남산조춤'으로 막을 내린다. 연출에 원광대 명예교수이자 국민훈장 석류장, 황조근정훈장 등을 서훈한 이길주.

장악과 정순영 주무관은 "전라도 특유의 음률에 맞춰 예기를 뽐내는 이번 레퍼토리에는 남도만의 흥과 신명이 깃들여 있다"며 "한을 승화하는 호남 지방춤이나 명자를 위무하는 지전춤 등이 호남 예술의 멋과 태를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관람, 국악원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우리 삶에 숨겨진 시간을 되찾는 것

목포 출신 김비주 시인, 네 번째 시집 '리브 체인의 날개들' 펴내

목포 출생 김비주(사진)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리브 체인의 날개들' (상상인)을 펴냈다. 작품집에는 '휴식', '어둠을 건너는 나무들', '꿈을 꾸지요, 피워낸 생각처럼', '시간 너머로 쏟아지는 기



과 꿈의 날아들이 이야기한다. 화자는 혼자만의 숨은 시간을 견지하며 '우주의 시간 속 조그마한 열매'를 지향한다. 세상의 모진 풍파와 자연의 은전을 받아 열매로 맺히는 시간 속에서도 '찌앗으로 남'아 "숨은 시간"을 추구한다.

시인이 바라보는 시의

세계, 문학의 세계가 어느 경계없이 어렵듯이 가늠이 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숨겨진 시간"을 희구하는 순간은 결코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생기와 씨앗을 퍼뜨리며 생의 또다른 의미있는 순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김학중 시인의 표현대로 "생기-사건"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삶에 숨겨진 시간을 되찾는 것"에 모티브를 둔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존재를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생기-사건'은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잠시 잠깐의 휴식을 선사한다.

"사람에게는 숨은 시간이 있다/ 작은 열매 속 숨겨진 커다란 씨앗처럼/ 혼자만이 머무르고 싶을 때// 우주의 시간 속 조그마한 열매로/ 비 맞고 바람 불고 햇빛 받아 자연의 색깔로/ 꿈을 숨기고/ 문득, 그 열매 먹고 씨앗 도드라질 때// 나// 씨앗으로 남아 숨은 시간을 갖고 싶다"

김학중 시인은 해설에서 "이 시편들을 읽는 시적 경험들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의 근원적 지평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한다.

위의 '휴식'이라는 작품은 휴식 속에 담긴 생명

를 줄임으로써 지금까지 시집 '오후 석 점, 바람의 말', '봄길, 영화처럼', '그해 여름은 모노톤으로'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국창 임방울상'에 채수정 교수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가 최근 제6회 '국창 임방울상' (상금 600만원) 수상자로 채수정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사진)를 선정했다.

'국창 임방울상'은 역대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중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판소리 계승, 보급,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011년 임방울국악제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채 교수는 2015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저서 출간, 개인 발표회 및 음반 제작을 통해 판소리 계승·보급에 힘써 왔다.

이화여대에서 판소리 박사 학위(1호)와 경희대 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등을 취득했으며 그동안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여 왔다. 국악방송 '판소리 유랑', MBC 라디오 '좋은 아침 우리 가락'에서 구성작가 등을 맡아 판소리 대중



화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그는 전남대, 원광대, 고려대, 서울예대 등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다. 2022년에는 (사)세계판소리협회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박승희 흥보가 악보집', '채수정 적벽가 돌아보기' 등 저서를 출간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 임방울판소리체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